

포천-화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.

< 보도 내용 (KBS NEW9 현장K, 3.5) >

- ◆ “개통은 ‘성대’, 마무리는 ‘느긋’... 진흙탕이 된 고속도로 아랫마을”
 - 공사용 자재 방치 및 마을도로 포장 파손 등으로 주민 통행 불편 초래

- 포천-화도 공사 시 사업시행자가 남양주시 수동면 마을도로 옆 기존 배수로를 복개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한 후 원상복구* 작업이 잦은 우천 등으로 지연되어 주민불편이 발생하였습니다.

* 배수로 원상복구(2.0m×1.5m), 마을도로 아스콘 재포장 100m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서울국토청으로 하여금 동구간 공사 마무리 상태를 즉시 점검토록 하고, 사업시행자에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.

- 이에 사업시행자는 3월 8일까지 방치자재 정리 및 배수로를 복구하고, 3월 12일까지는 마을도로 재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.

- 아울러,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포천~화도 고속도로 모든 구간의 공사 마무리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	책임자	과 장	박문수 (044-201-3389)
		담당자	사무관	남궁영 (044-201-3930)
			주무관	조성원 (044-201-3905)